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이 글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때로부터 3년의 세월이 지나서야 겨우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안으로 이 글을 탈고하는 일을 최우선 목표로 잡았으나 뜻대로 잘 되지 않은 채 시간은 또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밀려다가는 금년에도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밀려와서,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되겠다는 강박감과 함께 이 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기독교는 가장 큰 종교입니다. 세계의 3대 종교가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마호멧교)라고 하지만, 그 교세(教勢)를 논할 때 기독교가 가장 큰 것은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불교 인구도 많은 것이 사실이었으나, 온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골고루 전파되어 교세를 확장한 기독교와는 비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이 이런 고등 종교를 믿고 있는데도 세상이 더 좋아지지 않는 것은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기독교 국가들의 도덕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어지럽고 부패해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의 대표 격인 미국의 도덕성은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땅에 떨어졌으며, 심지어 사회학자들은 이것을 현대 문화의 한 형태라고 해석하면서 개혁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적 형태에 편승하고 동조하려고 하는 인상을 줍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서울의 밤거리를 나다니면, 붉은 불을 켜 십자가가 왜 그렇게 많은지요! 그것이 거의 모두 교회당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약국 십자가까지 보태어 서울의 야경은 십자가 경치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도덕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중생(重生)과 사랑을 가르치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사회는 왜 이런 모습일까요?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세상의 모습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지만, 예언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 것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예언한 것이지요. 우리가 예언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가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예정(豫定) 하시기보다는 예언(豫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말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 역사의 진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미리 보시고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사 46:10), 사람들이 그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찾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요 13:19, 14:29)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언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말은 인생이 이런 결국으로 치닫는 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예언을 깨달아서 때에 합당하게 대처하는 것이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딤후 1:18)고 권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혼란한 것은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두가 이기심으로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믿지 아니하면 이기심이 지배하는 신앙을 하게 되며, 그렇게 신앙하면 소위 신앙의 이름으로 가장 이기적인 잔인성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의 기독교가 이 이기심을 부추이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사랑과 희생을 나타내면서도 실제적인 사건을 직면할 때는 자기 본위의 이기적인 발상으로 대처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찍부터 썩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역사를 보십시오. 종교로 인한 전쟁이 가장 잔혹하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는 기독교의 몫이 아주 큼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이런 종교의 배리(背理)를 지적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黜會)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요 16:1, 2) 이 예언의 말씀이 정확한 것임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예언이 적용되고 있으니 인간의 무지가 하나님의 진리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

이기심! 이기심이 없어야 진짜 신앙인이 됩니다. 이기심이 없어지도록 예수의 복음이 설교되어야 하고 깨달아져야 하고 실천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의 복음을 깨달으면 이기심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기심은 자기 본위로 예수를 믿을 때,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을 때보다 더 강하게 발동되는 묘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계시하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예수를 믿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법을 행하는 자로 판결될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선지자 노릇한 사람과, 권능을 행한 사람과, 귀신을 쫓아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마 7:21-23). 이 모두가 P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지요. 이적을 쫓아 이리저리 물리는 예수쟁이들은, 죄송합니다만, 아마도 거의 전부가 이기심을 쫓는 신앙인들인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이적은 이기심에서 해방되는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를 바르게 믿는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내[自我]가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내가 죽고 없는데 살아 있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계시한 너무나 확실한 사실인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 있어서 예수를 믿고 선을 행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여 자기가 생각한 예수를 믿으며, 또 강단에서 그런 예수를 양산(量産)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른 예수”요, “다른 복음”이며, “다른 영”입니다(고후 11:4). 이렇게 자신이 생각한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이런 우상 숭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계 18:2)고,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계 14:8)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심이라는 귀신을 섬기고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는 사람들이 바른 복음을 깨닫도록 도와야 되겠다는 소리를 마음으로부

터 들으면서, 이 글을 써야 되겠다는 마음의 놀림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독자들 중에서는 또 하나의 다른 예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 아니냐고 염려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를 살살이 대조하여서 그 잘못된 점을 밝히시는 공부를 스스로 하시면 그 또한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엘리후의 마음처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됨 같” 습니다(욥 32:19). 이런 부담을 안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바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쓸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구하여 기도하며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보니 심히 건방진 것 같아 스스로 부끄러워집니다. 그러나 나의 심정을 솔직히 털어놓은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거부감이 생겼다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글을 읽는 일을 중단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글은 분명 온 세상을 환하게 할 영원한 복음(계 18:1, 14:6)을 독자들에게 설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지혜로 깨닫도록 기도하시면서 읽으시고, 전정으로 생명의 복음을 깨달아 이기심 없는 생명의 봉사자가 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경험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1995년에 이미 나는 이 글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은 지 3년이 지났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탈고하고 필자의 교정을 끝낸 것이 1996년 4월이었는데, 지금은 1997년 6월입니다. 글을 써도 출판하는 일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삼육대학교 신학과 남대극 교수의 도움으로 신학연구소의 이름으로 출판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신학연구소와 삼육대학교 당국에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 글이 읽는 분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분명히 밝히는 길잡이가 되고, 죄와 의의 성경적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였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서 자주 듣는 말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성화” 등에 관한 바른 개념이 정립되어서 남은 자손으로서의 신앙이 확실해지고 돈독해지며,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영원한 복음 기별을 바르게 증거하는 능력 있는 도구들이 되어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세상을 준비시

키는 역군들이 되는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 책의
출판을 도와주신 분들과 글을 쓰는 데 협력해 주신 여러분들과 하나님께 감사
를 드립니다.

저 자 김 명 호